

1. 다음 <표 1>, <표 2>는 2019~2023년 갑국 가정폭력범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9~2023년 갑국 가정폭력범죄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접수 건수	240,439	221,824	218,680	225,609	230,830

<표 2> 2019~2023년 갑국 가정폭력범죄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전체	구속	불구속
2019년	50,277	59,472	490	58,982
2020년	44,459	52,431	330	52,101
2021년	46,041	53,985	410	53,575
2022년	44,816	52,146	496	51,650
2023년	44,582	55,247	575	54,672

<보 고 서>

갑국에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가자 범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대응도 매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갑국에서는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 모델 시행 등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갑국의 가정폭력범죄 신고접수 건수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갑국의 가정폭력범죄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및 2021년에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2년 및 2023년에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2023년 가정폭력범죄 신고접수 건수는 2019~2023년 동안 가정폭력범죄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적었던 2021년 신고접수 건수 대비 5% 이상 증가하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갑국의 가정폭력범죄 검거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3년 가정폭력범죄 검거 건수는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가정폭력범죄 검거 인원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가정폭력범죄 검거 인원이 5% 이상 증가하였고, 가정폭력범죄 검거 건수 대비 검거 인원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자는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처리되는데, 2019년부터 2023년 동안 구속되는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전체 검거 인원 중 구속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 다음 <표 1>, <표 2>는 2024년 A~F사무관의 법안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24년 상반기 법안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A	B	C	D	E	F
접수 건수	128	200	83	104	()	142
처리 건수	100	143	62	70	80	68
처리율	()	71.5	74.7	()	50.0	47.9

※ 처리율(%) = $\frac{\text{처리 건수}}{\text{접수 건수}} \times 100$

<표 2> 2024년 하반기 법안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A	B	C	D	E	F
접수 건수	85	()	133	110	152	78
처리 건수	68	105	120	98	100	()
처리율	80	87.5	90.2	()	65.8	66.7

※ 처리율(%) = $\frac{\text{처리 건수}}{\text{접수 건수}} \times 100$

- ① 2024년 상반기 법안 처리율이 가장 높은 사무관은 A이다.
- ② 2024년 하반기 법안 처리율이 가장 높은 사무관은 C이다.
- ③ 2024년 전체 기간 동안 법안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사무관은 B이다.
- ④ 2024년 전체 기간 동안 법안 처리율이 가장 높은 사무관은 C이다.
- ⑤ 2024년 전체 기간 동안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은 사무관은 E이다.

3. 다음 <표>는 A국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별·환산점수대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국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별·환산점수대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5개 과목 평균
90점 이상	111	13	1,182	17	170	4
80점 이상	1,753	205	3,790	296	1,638	406
70점 이상	4,604	1,214	5,582	1,496	3,808	2,990
60점 이상	6,610	3,384	6,907	3,475	5,766	5,354
50점 이상	8,205	6,281	8,233	5,408	7,352	7,006
40점 이상	10,175	9,033	9,900	7,339	9,027	8,802
30점 이상	12,713	11,924	12,195	10,206	11,381	11,674
20점 이상	14,255	14,014	14,110	13,518	13,877	14,393
10점 이상	14,463	14,449	14,463	14,447	14,458	14,470
0점 이상	14,472	14,472	14,472	14,472	14,472	14,472
과락자 수	4,297	5,439	4,572	()	5,445	
과락률	29.7	37.6	31.6	()	37.6	

※ 1) 1차 시험은 5개 과목이며, 각 과목별로 만점의 40% 미만 득점 시 과락임

2) 회계학(원점수 기준 150점 만점)의 환산점수는 원점수를 1.5로 나눈 값이며, 그 외 4개 과목은 모두 원점수 기준 100점 만점으로 원점수가 환산점수와 같음

3) 과락률(%) = $\frac{\text{과락자 수}}{\text{총 응시자 수}} \times 100$

4) 총 접수자 수는 16,910명임

- <보 기>
- ㄱ. 세법개론의 과락률은 50% 미만이다.

ㄴ. 원점수가 60점 이상인 인원이 세 번째로 많은 과목은 회계학이다.

ㄷ. 총 접수자 수 대비 원점수 기준 60점 이상 90점 미만 득점한 인원의 비율이 20% 이상인 과목은 3개이다.

ㄹ. 한 과목 이상에서 과락인 인원을 제외한 인원 중 5개 과목 평균 환산점수 기준 상위 30% 인원만 1차 시험에서 합격한다면, 1차 시험 합격자의 5개 과목 평균 환산점수는 모두 70점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4. 다음 <표>는 A~E 5개국 인구, 자동차 등록 대수 및 교통사고 현황과 1인당 GDP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보고서>를 근거로 A~E에 해당하는 국가(대한민국,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A~E 5개국 인구, 자동차 등록 대수 및 교통사고 현황과 1인당 GDP

구분	인구 (천명)	자동차 등록 대수 (천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 (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명)	1인당 GDP (달러)
A	60,795	51,910	174,539	3,428	31,952
B	38,005	27,409	32,967	2,938	13,811
C	50,617	24,755	232,035	4,621	29,743
D	46,449	33,412	97,756	1,689	28,156
E	65,110	37,570	146,203	1,804	39,720

<보 고 서>

세계 각국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위의 <표>는 A~E 5개국의 교통사고 관련 통계와 1인당 GDP를 보여주는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다섯 국가 가운데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영국에 비해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아 교통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자동차 등록 대수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그 뒤로 폴란드, 이탈리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인구와 등록된 자동차 수를 고려한 상대적인 비중을 줄여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 | A | B | C | D | E |
|---|------|------|------|------|-----|
| ① | 대한민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영국 |
| ② | 대한민국 | 폴란드 | 스페인 | 이탈리아 | 영국 |
| ③ | 이탈리아 | 폴란드 | 대한민국 | 스페인 | 영국 |
| ④ | 이탈리아 | 스페인 | 대한민국 | 폴란드 | 영국 |
| ⑤ | 영국 | 이탈리아 | 대한민국 | 폴란드 | 스페인 |

5. 다음 <표 1>, <표 2>는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인원 및 비율
(단위: 천명, %)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과의존 위험군 (비율)	4,561 (14.2)	5,810 (16.2)	7,426 (17.8)	7,860 (18.6)	8,278 (19.1)	8,871 (20.0)	10,212 (23.3)	10,718 (24.2)	10,426 (23.6)	9,918 (23.1)
고 위험군 (비율)	650 ()	863 ()	1,042 ()	1,133 ()	1,180 ()	1,274 (2.9)	1,753 ()	1,983 ()	1,869 (4.2)	1,803 ()
잠재적 위험군 (비율)	3,911 ()	4,947 (13.8)	6,384 ()	6,727 ()	7,098 ()	7,597 ()	8,459 ()	8,735 ()	8,557 ()	8,115 ()

※ 1) 위험군 비율(%) = $\frac{\text{위험군 인원}}{\text{조사대상 인원}} \times 100$
2) 과의존위험군 = 고위험군 + 잠재적위험군

<표 2> 연령대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단위: %)

연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3~9세	-	12.4	17.9	19.1	20.7	22.9	27.3	28.4	26.7	25.0
10~19세	29.2	31.6	30.6	30.3	29.3	30.2	35.8	37.0	40.1	40.1
20~59세	11.3	13.5	16.1	17.4	18.1	18.8	22.2	23.3	22.8	22.7
60~69세	-	-	11.7	12.9	14.2	14.9	16.8	17.5	15.3	13.5

※ 1) 연령대별 위험군 비율(%) = $\frac{\text{연령대별 위험군 인원}}{\text{연령대별 조사대상 인원}} \times 100$
2) 전체 조사대상 인원은 3~69세로만 이루어짐

<보 기>

- ㄱ. 2015~2023년 중 고위험군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40% 이상인 연도가 있다.
- ㄴ. 전체 조사대상 인원은 2016년 이후로 계속 40,000천명 이상이다.
- ㄷ. 2014~2023년 중 과의존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은 ‘10~19세’가 매년 가장 많다.
- ㄹ. ‘3~9세’ 과의존위험군 비율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3년이 2022년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6. 다음 <표>는 2023년 갑국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평균 및 구성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3년 갑국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평균 및 구성
(단위: 만원, %)

구 분		가구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금 액	전 체	7,185	4,636	1,272	559	613	105
	1분위	1,505	406	131	128	646	194
	2분위	3,513	1,896	634	245	595	143
	3분위	5,700	3,431	1,172	354	655	88
	4분위	8,605	5,869	1,593	492	600	51
	5분위	16,602	11,579	2,830	1,576	569	48
전 년 대 비 증 감 률	전 체	6.3	5.6	5.5	28.1	-1.9	-1.0
	1분위	7.1	3.1	23.1	30.4	5.7	-0.5
	2분위	6.1	8.0	11.0	33.5	-7.8	-7.9
	3분위	5.8	5.1	9.1	24.4	-4.4	10.4
	4분위	6.1	6.3	3.4	31.1	-2.6	-15.5
	5분위	6.4	5.1	3.4	27.1	0.4	22.9

<보 기>

- ㄱ. 2023년 분위별 평균 가구소득의 전년 대비 증감액은 1분위 가구가 2분위 가구에 비해 크다.
- ㄴ. 2023년 분위별 평균 가구소득 중 평균 사업소득의 비중은 3분위가 4분위보다 낮다.
- ㄷ. 2022년 전체 가구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022년 1분위 가구의 평균 공적이전소득보다 높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7.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2020~2023년 A국 공공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표 1> 2020~2023년 A국 공공기관 수입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기업	시장형	1,627,409	1,822,668	2,727,792	2,950,599
	준시장형	660,160	742,638	802,508	829,877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820,220	1,858,887	2,067,360	2,119,988
	위탁집행형	1,447,660	1,577,999	1,727,374	1,677,524
기타공공기관		1,604,225	1,423,810	2,103,103	1,604,830
전체		7,159,674	7,426,002	9,428,137	9,182,818

<표 2> 2020~2023년 A국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기업		149,592	149,938	150,956	148,542
	시장형	74,701	75,530	76,169	75,027
	준시장형	74,891	74,408	74,787	73,515
준정부기관		113,340	116,440	118,339	125,039
	기금관리형	30,106	31,063	31,660	33,218
	위탁집행형	83,234	85,377	86,679	91,821
기타공공기관		152,311	156,553	160,183	156,434
	은행형 공공기관	18,190	18,503	18,609	17,952
	기타	134,121	138,050	141,574	138,482
전체		415,243	422,931	()	()

<표 3> 2020~2023년 A국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4,973	5,080	5,117	5,445
	장애인 고용인원	5,070	()	()	5,834
시장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2,188	2,219	2,287	2,387
	장애인 고용인원	2,156	2,308	2,364	2,477
준시장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2,785	2,861	2,830	3,058
	장애인 고용인원	2,914	3,408	3,279	3,357
준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4,114	4,487	4,356	4,654
	장애인 고용인원	4,709	()	()	5,785
기금관리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022	1,007	1,039	1,084
	장애인 고용인원	1,164	1,221	1,179	1,294
위탁집행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3,092	3,480	3,317	3,570
	장애인 고용인원	3,545	4,195	4,478	4,491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9,087	9,567	9,473	10,099
	장애인 고용인원	9,779	()	()	11,619

- ① 2020~2023년 A국 전체 공공기관 수입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 ② 2020~2023년 A국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중 은행형 공공기관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 ③ 2020~2023년 A국 시장형 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 ④ 2022년 A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장애인 고용인원의 합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⑤ 2023년 A국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8. 다음 <표 1>, <표 2>는 2017~2022년 분야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7~2022년 분야별 문화예술활동 비율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문학	24.6	24.8	22.5	48.0	31.8	25.7
시각예술	29.6	25.6	27.5	21.5	28.6	29.6
공연예술	45.8	49.6	50.0	30.5	39.6	44.7

<표 2> 2017~2022년 공연예술 세부분야별 문화예술활동 건수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악	1,583	1,735	1,929	645	1,435	1,941
양악	10,576	11,333	12,219	4,629	9,467	12,542
연극	6,533	7,608	9,403	2,424	4,870	6,708
무용	1,340	1,271	1,540	517	1,237	1,358
혼합	2,576	2,773	3,546	874	1,551	1,832
소계	22,608	24,720	28,637	9,089	18,560	24,381

<보 기>

ㄱ. 2020년 전체 문화예술활동 건수는 3만건 이상이다.

ㄴ. 2019년 시각예술분야 문화예술활동 건수는 1만 5천건 이상이다.

ㄷ. 제시된 기간 동안 매년 연극이 공연예술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이하이다.

ㄹ. 2018년 문학분야 문화예술활동 건수는 2022년 양악분야 문화예술활동 건수보다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9. 다음 <표 1>, <표 2>는 글로벌 IT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 정책과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클라우드 서비스 기본 요금제, 할인율 및 지역별 할증률

구분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 정책	
기본 요금제	컴퓨팅	0.10달러/vCPU
	메모리	0.06달러/GB
	스토리지	0.005달러/GB
	네트워크	0.04달러/GB
할인율	선결제	－ 1년: 25% － 3년: 35%
	컴퓨팅 사용량 구간별	－ 1,000vCPU 이상 5,000vCPU 미만: 10% － 5,000vCPU 이상 10,000vCPU 미만: 20% － 10,000vCPU 이상: 30%
지역별 할증률	유럽	10%
	아시아	15%
	남미	20%

※ 1) 기본 요금이란 고객의 월간 평균 사용량을 기본 요금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
 2)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
 = 기본 요금 × (1 - 할인율 + 할증률) = 기본 요금 - 월간 비용 절감액
 3) 할인율 = 선결제 할인율 + 컴퓨팅 사용량 구간별 할인율

<표 2> 고객별 월간 평균 사용량

A (아시아)	B (유럽)	C (남미)
- 컴퓨팅: 8,000vCPU - 메모리: 32,000GB - 스토리지: 55,000GB - 네트워크: 15,000GB	- 컴퓨팅: 12,000vCPU - 메모리: 48,000GB - 스토리지: 75,000GB - 네트워크: 25,000GB	- 컴퓨팅: 6,000vCPU - 메모리: 24,000GB - 스토리지: 45,000GB - 네트워크: 35,000GB

- ① C의 기본 요금 중 메모리와 네트워크 요금의 합은 B의 기본 요금 중 메모리 요금보다 작다.
- ② A~C의 기본 요금 중 메모리 요금의 비중은 각각 40%를 초과한다.
- ③ A의 기본 요금이 C의 기본 요금보다 높다.
- ④ C가 3년 선결제 계약을 한 경우 C의 월간 비용 절감액은 1,300달러보다 많다.
- ⑤ A가 1년, B가 3년 선결제 계약을 한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은 A가 B보다 낮다.

10. 다음 <표>는 2018~2022년 A~F국의 국방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8~2022년 A~F국의 국방비

(단위: %, 달러)

구분		A국	B국	C국	D국	E국	F국
2022년	GDP 대비 국방비	4.3	3.1	1.2	3.1	1.1	2.5
	국민 1인당 국방비	2,171	471	171	2,272	387	829
	병력 1인당 국방비	113,824	56,182	119,120	563,681	194,652	77,461
2021년	GDP 대비 국방비	5.1	2.8	1.2	3.3	1.0	2.6
	국민 1인당 국방비	2,310	322	148	2,151	395	902
	병력 1인당 국방비	119,406	50,891	101,887	540,515	199,409	84,054
2020년	GDP 대비 국방비	5.2	3.0	1.3	3.6	1.0	2.6
	국민 1인당 국방비	1,918	305	139	2,219	396	779
	병력 1인당 국방비	98,195	47,982	94,985	534,860	200,902	72,788
2019년	GDP 대비 국방비	5.8	2.9	1.3	3.2	0.9	2.4
	국민 1인당 국방비	2,254	340	130	2,063	386	816
	병력 1인당 국방비	99,139	51,538	89,010	503,562	195,141	73,402
2018년	GDP 대비 국방비	5.1	2.9	1.3	3.1	1.0	2.3
	국민 1인당 국방비	2,328	318	122	1,917	373	737
	병력 1인당 국방비	92,040	50,046	83,786	468,081	190,212	63,754

<보 기>

ㄱ. A~F국 중 2020년 대비 2021년 병력 1인당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는 A국이다.

ㄴ. 2021년 D국의 GDP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면 해당 기간 D국 국민 수는 감소했다.

ㄷ. F국의 2019년 대비 2021년 총 국방비가 15% 증가했다면 해당 기간 F국의 병력 인원수는 감소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11. 다음 <표>와 <조건>은 학생별 1~4차 시험점수와 학점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학생별 1~4차 시험점수 및 학점
(단위: 점)

학생	1차	2차	3차	4차	학점
갑	()	70	90	80	B
을	40	()	80	80	()
병	90	()	100	80	A
정	50	40	()	100	()
무	()	60	80	90	C

<조 건>

- 회차별 점수는 최저 0점, 최고 100점이며 10점을 단위로 매겨진다.
- 학점은 학생별로 1~4차 시험점수의 평균에 따라 매겨진다.
 -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면 A
 - 평균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B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C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D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F
-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는 각각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 기>

- ㄱ. 을은 A학점을 받을 수 있다.
- ㄴ. 정이 C학점을 받았다면 정의 3차 시험점수는 90점 이상이다.
- ㄷ. 1차 시험에서 갑과 무가 받은 시험점수의 합은 130점이다.
- ㄹ. 병의 2차 시험점수가 50점이라면 5명의 학생이 모두 다른 학점을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12. 다음 <표 1>, <표 2>는 A사의 개편 전·후 배달요금제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개편 전 A사 배달요금제
(단위: 원)

주문금액대 구분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1만 5천원 이하	1만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
중개이용료	980	1,470	1,960	2,450
업주부담배달비	2,900	2,900	2,900	2,900
결제정산이용료	300	450	600	750
부가세	418	482	546	610
배달요금 총액	()	5,302	6,006	()

※ 배달요금 총액 = 중개이용료 + 업주부담배달비 + 결제정산이용료 + 부가세

<표 2> 개편 후 A사 배달요금제
(단위: 원)

주문금액대 구분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1만 5천원 이하	1만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
중개이용료	680	1,020	1,360	1,700
업주부담배달비	3,200	3,200	3,200	3,200
결제정산이용료	300	450	600	750
부가세	418	467	516	565
배달요금 총액	()	5,137	()	6,215

※ 배달요금 총액 = 중개이용료 + 업주부담배달비 + 결제정산이용료 + 부가세

<보 기>

- ㄱ. 1만원 이하의 음식을 배달 주문하는 경우 개편 전·후 배달요금 총액의 변동은 없다.
- ㄴ. 주문금액대별로 개편 후 중개이용료는 개편 전에 비해 각각 30% 이상 감소하였다.
- ㄷ. 개편 전 대비 개편 후 배달요금 총액의 감소율은 주문금액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3. 다음 <표>와 <정보>는 갑국의 모니터 제조 회사 A~E의 직원 수, 매출액 및 판매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E 중 ‘미래모니터’와 ‘사랑모니터’에 해당하는 회사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표> 갑국 모니터 제조 회사 A~E의 직원 수, 매출액 및 판매량
(단위: 명, 백만원, 개)

회사	직원 수	매출액	판매량
A	35	6,771	183,000
B	18	7,938	147,000
C	43	7,650	255,000
D	51	8,832	276,000
E	46	8,421	()

- ※ 1) 갑국의 모니터 제조 회사는 ‘도전모니터’, ‘미래모니터’, ‘사랑모니터’, ‘열정모니터’, ‘희망모니터’만 있음
2) 매출액 = 판매량 × 판매단가
3) A~E는 각각 1가지 종류의 모니터만 판매하며, 모니터 판매단가는 20,000원 이상 70,000원 이하임

<정 보>

- ‘사랑모니터’, ‘도전모니터’의 판매량은 각각 200,000개 이상이다.
○ 모니터 판매단가는 ‘희망모니터’가 ‘열정모니터’의 250% 이상이다.
○ 직원 1인당 매출액은 ‘사랑모니터’가 ‘도전모니터’보다 크다.

	미래모니터	사랑모니터
①	A	C
②	A	D
③	A	E
④	B	C
⑤	B	E

14. 다음 <표>는 A국 공적연금기금의 부문별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국 공적연금기금의 부문별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2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총 자산	9,841,606	100.0	8,904,657	100.0
금융부문	9,831,326	99.9	8,898,353	99.9
주 식	4,324,749	44.0	3,662,670	41.1
국 내	1,374,185	14.0	1,253,730	14.1
해 외	2,950,564	30.0	2,408,940	27.1
채 권	3,862,560	39.2	3,744,738	42.0
국 내	3,140,632	31.9	3,111,856	34.9
해 외	721,928	7.3	632,882	7.1
대체투자	1,629,798	16.6	1,422,322	16.0
국 내	238,724	2.4	244,261	2.7
해 외	1,391,074	14.1	1,178,061	13.2
단기자금	14,219	0.1	68,623	0.8
기타부문	10,280	0.1	6,304	0.1

※ 제시된 비중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보 기>

- ㄱ. 2023년 A국 공적연금기금의 총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ㄴ. 2023년 A국 공적연금기금의 국내 주식과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액의 합은 전년 대비 34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ㄷ. 2023년 A국 공적연금기금의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3년 A국 공적연금기금의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의 2배 이상이다.
ㄹ. 2024년 A국 공적연금기금의 총 자산 규모가 1,146조원이고 각 부문별 투자 비중은 2023년과 동일하다면, 2024년 국내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액은 2022년 대비 3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5. 다음 <표 1>~<표 4>는 갑국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보기> 중 <표 1>~<표 4>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피해금액	6,720	2,353	1,682	1,451	1,965
환급액	1,915	1,141	603	379	652
피해자 수	50,372	18,265	13,213	12,816	11,503

※ 법인 포함

<표 2> 범죄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출빙자	521	311	692
메신저피싱	991	927	662
기관사칭	170	213	611
합계	1,682	1,451	1,965

<표 3> 피해자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대 이하	52	92	231
30대	121	53	188
40대	219	145	249
50대	650	477	560
60대 이상	612	673	704
합계	1,654	1,440	1,932

※ 법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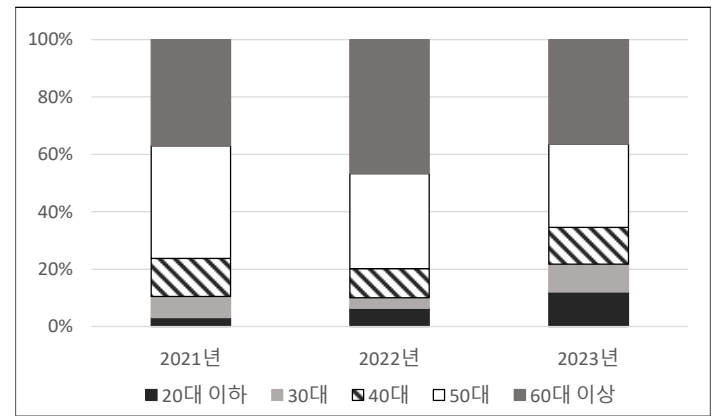
<표 4> 금융권역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은행	1,080	1,111	1,417
인터넷전문은행	129	304	196
비은행	602	340	548
증권사	220	34	31
중소서민금융 등	382	306	517
합계	1,682	1,451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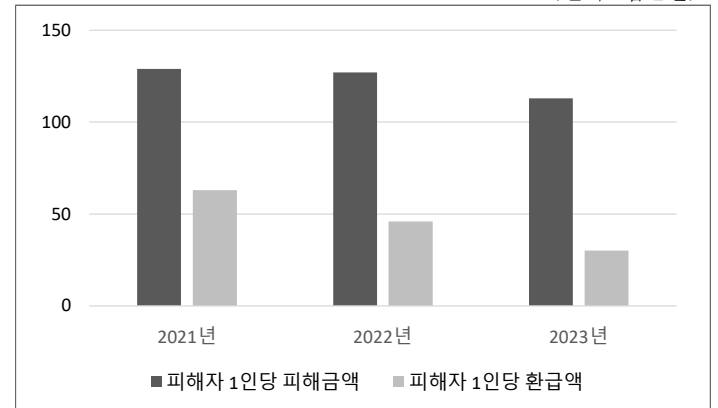
<보 기>

ㄱ. 피해자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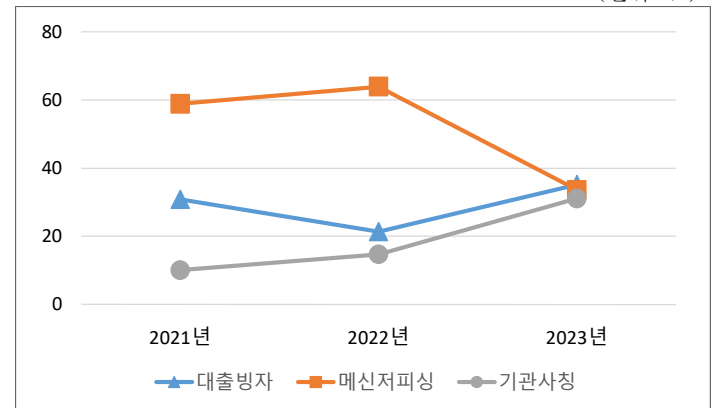
ㄴ. 피해자(법인 포함)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및 환급액

(단위: 십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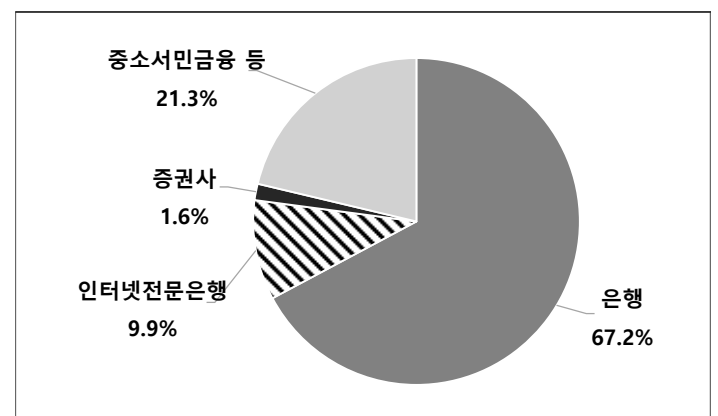


ㄷ. 범죄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 변화

(단위: %)



ㄹ. 2023년 금융권역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6. 다음 <표>는 2017~2023년 갑국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A~E에 해당하는 유형(공무원신분, 도시계획, 면허취득, 영업허가, 조세관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17~2023년 갑국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A	5,136	4,910	5,433	5,188	4,831	5,402	6,071
B	1,642	1,606	1,779	1,957	1,978	2,018	2,027
C	1,527	1,708	1,890	2,025	2,978	3,881	4,535
D	2,329	2,411	2,194	1,775	1,358	1,174	741
E	2,029	2,776	2,794	3,245	2,921	2,968	3,487

<정 보>

- 2019~2023년 동안 행정소송 사건 건수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유형은 영업허가, 공무원신분, 도시계획이다.
- 2017~2021년 동안 행정소송 사건의 평균 건수는 도시계획이 영업허가보다 많다.
- 2022년 대비 2023년 행정소송 사건 건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유형은 면허취득이다.
- 2017~2023년 동안 행정소송 사건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매년 순위를 매길 경우 4위를 한 헛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공무원신분이다.

- | | | | | | |
|---|----------|----------|----------|----------|----------|
| | <u>A</u> | <u>B</u> | <u>C</u> | <u>D</u> | <u>E</u> |
| ① | 조세관계 | 공무원신분 | 도시계획 | 영업허가 | 면허취득 |
| ② | 면허취득 | 영업허가 | 공무원신분 | 도시계획 | 조세관계 |
| ③ | 조세관계 | 영업허가 | 공무원신분 | 도시계획 | 면허취득 |
| ④ | 면허취득 | 공무원신분 | 도시계획 | 조세관계 | 영업허가 |
| ⑤ | 조세관계 | 공무원신분 | 영업허가 | 도시계획 | 면허취득 |

17. 다음 <표>는 2018~2023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별 발급실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8~2023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별 발급 건수 및 발급액
(단위: 건, 만원)

발급수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휴대폰	발급 건수	394,347	356,667	376,186	392,958	403,597	413,642
	발급액	830,371	855,099	1,006,898	1,124,568	1,217,900	1,254,605
등록번호	발급 건수	50,212	52,027	53,026	51,762	52,237	51,150
	발급액	334,664	359,601	400,448	426,086	443,462	444,703
전용카드	발급 건수	5,049	3,647	2,803	2,216	1,856	1,656
	발급액	15,703	11,633	9,434	8,332	6,588	5,669
앱카드	발급 건수	15	12	10	6	5	4
	발급액	39	31	25	11	11	8
멤버십	발급 건수	1,254	887	724	700	694	1,074
	발급액	4,984	4,084	3,588	3,474	3,275	5,491
합계	발급 건수	450,877	413,240	432,749	447,642	458,389	467,526
	발급액	1,185,761	1,230,448	1,420,393	1,562,471	1,671,236	1,710,476

※ 제시된 발급수단 외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은 없으며, 하나의 현금영수증은 하나의 발급수단으로만 발급할 수 있음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급 건수가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하는 발급수단은 3개이다.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급액이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하는 발급수단은 2개이다.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휴대폰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1건당 발급액은 매년 전년 대비 증가한다.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액 중 등록번호를 통한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0% 이상이다.
- 2022년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 건수 대비 발급 건수의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발급수단은 2개이다.

18.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마약 밀수 단속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마약 밀수 단속 추이
(단위: 건, kg,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약 밀수 단속 건수	661	696	1,054	771	704
마약 밀수 단속 중량	412	148	1,272	624	769
마약 밀수 단속 금액	8,733	1,592	4,499	600	613

<표 2> 반입경로별 마약류 단속실적(2024년 11월 기준)
(단위: 건, g,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항공 여행자	112	36,155	177	148,099	184	131,784	15	14
해상 여행자	0	0	0	0	1	81	-	-
국제 우편	461	361,287	328	327,307	389	181,174	31	-39
특송 화물	196	225,776	194	274,681	210	323,818	30	93
기타	2	1,233	5	19,276	8	65,727	100	248
합계	771	624,451	704	769,363	792	702,584	26	17

※ 제시된 비율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3> 품목별 마약류 단속실적(2024년 11월 기준)
(단위: 건, g,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11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필로폰	120	261,888	155	437,662	144	422,449	4	41
코카인	8	152	17	11,343	7	67,600	-53	1,021
헤로인	1	5	2	1,362	0	0	-100	-100
대마	284	93,093	212	143,442	196	51,231	3	-60
기타	492	269,313	469	175,554	614	161,304	43	-2
합계	905	624,451	855	769,363	961	702,584	24	17

※ 1) 제시된 비율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2) 품목별 단속 건수가 반입경로별 단속 건수와 상이한 이유는 사건 1건에 2품목 이상 단속된 것에 기인함

- ① 2019~2023년 동안 마약 밀수 단속 건수 대비 마약 밀수 단속 금액이 가장 낮은 해는 2022년이다.
- ② 2023년 12월에 항공여행자를 통하여 반입된 마약류의 단속 건수는 17건이다.
- ③ 2023년 필로폰의 단속 건수 대비 중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④ 2023년 12월에 2품목 이상 단속된 건수는 10건 이하이다.
- ⑤ 2024년 12월에 특송화물을 통하여 반입된 마약류의 단속 건수가 2023년 12월과 동일하다면 2023년 대비 2024년 특송화물을 통하여 반입된 마약류 단속 건수의 증가율은 30% 이상이다.

※ 다음 <표 1>, <표 2> 및 <표 3>은 갑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표 1> 연도별 참여율, 피해 응답률 및 피해 응답 인원
(단위: %, 만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참여율	90.7	82.6	85.4	82.9	82.6	81.7
피해 응답률	1.6	0.9	1.1	1.7	1.9	2.1
피해 응답 인원	6.0	2.7	3.6	5.4	5.9	6.8

※ 1) 참여율(%) = $\frac{\text{참여 인원}}{\text{실태조사 대상 인원}} \times 100$
2) 피해 응답률(%) = $\frac{\text{피해 응답 인원}}{\text{참여 인원}} \times 100$
3) 제시된 비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2> 2024년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비율
(단위: %)

구분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성폭력	금품 갈취	스토킹	기타
전체	39.4	15.5	15.5	7.4	5.9	5.4	5.3	5.6
초등학생	39.0	16.7	14.3	6.3	5.4	5.7	6.2	6.4
중학생	40.0	13.5	17.7	9.2	6.7	4.9	3.4	4.6
고등학생	41.3	11.6	17.6	10.4	7.2	4.0	3.7	4.2

※ 1) 복수응답 없음
2) 제시된 비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3> 2024년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

구분	같은 반 학생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	같은 학교 다른 학년 학생	다른 학교 학생	기타
전체	48.4	30.9	8.1	6.0	6.6
초등학생	48.8	29.7	9.2	5.3	7.0
중학생	48.3	33.3	5.8	7.0	5.6
고등학생	45.8	33.1	5.7	8.3	7.1

※ 1) 복수응답 없음
2) 제시된 비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19. 제시된 <표 1>, <표 2> 및 <표 3>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고 서>

최근 6년간 갑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참여율은 2019년 90.7%에서 2024년 81.7%로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 응답률은 같은 기간 1.6%에서 2.1%로 증가하였고, 특히 피해 응답 인원은 2019년 6.0만명에서 2024년 6.8만명으로 증가해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같은 기간 학교폭력 미신고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전체의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언어폭력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서 가장 빈번했으며, 고등학생은 성폭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 반 학생에 의해 쉬는 시간에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를 차지하여 교내에서 학교폭력은 교사의 관리가 부족한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같은 반 학생에 의한 폭력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이 30.9%를 차지하였다. 이는 학교 내 관계 개선을 통한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 기>

ㄱ. 2019~2024년 연도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대상 인원
ㄴ. 2019~2024년 연도별 학교폭력 미신고 인원
ㄷ. 2024년 가해자 유형별·피해 시간별 피해 응답 비율
ㄹ. 2019~2023년 연도별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별 비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20. 다음 <표 4>는 2024년 갑국 학생들의 피해 장소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 비율에 대한 자료이다. 위 <표 1>, <표 2> 및 <표 3>과 아래 <표 4>를 근거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4> 2024년 피해 장소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 비율
(단위: %)

구분	학교 안						
	교실	복도	운동장	화장실	특별실	급식실	기타
전체	29.3	17.1	9.6	5.3	4.9	4.2	0.5
초등학생	28.4	15.9	10.2	5.3	4.4	3.6	0.2
중학생	31.0	19.6	8.7	5.6	5.3	5.0	0.5
고등학생	30.7	17.5	8.0	5.0	7.1	6.8	2.0
구분	학교 밖						
	공원	사이버 공간	학원 근처	집 근처	체험활동 장소	PC방	기타
전체	6.6	6.2	5.4	4.0	3.4	1.1	2.4
초등학생	8.8	4.6	6.8	4.7	3.6	0.9	2.6
중학생	3.0	8.6	3.1	2.8	3.0	1.6	2.2
고등학생	2.1	10.0	2.2	2.1	2.9	1.4	2.2

※ 1) 복수응답 없음
2) 제시된 비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보 기>

ㄱ. 2024년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중 ‘복도’ 또는 ‘화장실’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를 넘는다.

ㄴ. 2019~2024년 중 학교폭력 실태조사 대상 인원이 가장 적은 해는 피해 응답 인원이 가장 적은 해와 동일하다.

ㄷ. 2024년 초등학생 중 ‘같은 반’ 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에게 ‘교실’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 인원은 중학생 중 같은 유형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 인원 보다 많다.

ㄹ. 2024년 학교 안과 밖을 통틀어 학교폭력 피해 장소 응답 비율 상위 3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동일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1. 다음 <표 1>, <표 2>는 글로벌 콘텐츠 및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1> 글로벌 콘텐츠 산업별 시장규모
(단위: 억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판	2,270	2,343	2,336	2,318	2,303
게임	1,893	2,063	2,281	2,497	2,712
방송	4,222	4,456	4,547	4,605	4,689
영화	118	215	358	437	458
음악	355	453	586	638	667

<표 2> 국내 콘텐츠 산업별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백억원)	수출액 (십만달러)	매출액 (백억원)	수출액 (십만달러)	매출액 (백억원)	수출액 (십만달러)
출판	2,134	2,147	2,165	3,460	2,470	4,284
게임	1,558	66,577	1,889	81,936	2,099	86,729
방송	2,084	5,392	2,196	6,928	2,397	7,180
영화	643	378	299	542	325	430
음악	681	7,562	606	6,796	937	7,753

※ 2020년 국내 콘텐츠 산업 총매출액은 128.3조원, 총수출액은 119.2억달러이며, 2021년 국내 콘텐츠 산업 총매출액은 137.5조원, 총수출액은 124.5억달러임

<보 고 서>

2024년 글로벌 콘텐츠 시장규모는 3조 58억달러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기록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게임 산업의 2022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약 1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같은 해 영화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무려 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음악 시장의 경우 2022~2024년에 전년 대비 시장 규모 성장률이 매년 감소하였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 또한 가파른 성장세에 있다. ㉢2021년 국내 콘텐츠 산업 총매출액과 총수출액 모두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인 출판, 게임, 방송 산업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모두 전년 대비 매출액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특히 ㉣2021년 국내 콘텐츠 산업 총수출액 중 게임 산업 수출액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외 영향력이 큰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만, 영화와 음악 산업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화와 음악 산업 모두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영화 산업의 2021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2. 다음 <표>는 2020~2024년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0~2024년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구분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
2020년	478.8	546.9	-68.1	-112.0	()
2021년	482.0	558.0	-76.0	-118.6	()
2022년	514.5	607.7	-93.2	()	40.8
2023년	553.6	()	-85.1	()	40.4
2024년	604.4	()	-52.5	-90.6	()

※ 1)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2)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 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수입은 매년 증가하였다.
- ②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1년이 2020년보다 크다.
- ③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이 2022년보다 작다.
- ④ 2024년의 총지출은 2023년보다 18.2조원 증가하였다.
- ⑤ 2020년의 총수입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의 비율은 15% 이상이다.

23. 다음 <표 1>, <표 2>는 2019~2023년 갑국 법무기관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2019~2023년 갑국 법무기관 인권침해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검찰국	교정국	출입국 사무소	보호 관찰국	기타
2019년	3,446	78	2,942	60	111	255
2020년	3,954	101	3,370	79	113	291
2021년	()	26	3,751	101	80	107
2022년	()	53	3,525	69	120	235
2023년	4,395	39	3,934	62	129	231

<표 2> 2019~2023년 갑국 법무기관 인권침해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각하	이첩	기각	인용
2019년	3,321	1,670	1,229	360	62
2020년	4,005	1,968	1,501	447	89
2021년	3,989	1,973	1,560	360	96
2022년	3,781	1,916	1,459	320	86
2023년	3,953	2,327	1,271	264	91

※ 1) 인용률(%) = $\frac{\text{인용 건수}}{\text{인권침해사건 처리 건수 합계}} \times 100$
 2) 각하율(%) = $\frac{\text{각하 건수}}{\text{인권침해사건 처리 건수 합계}} \times 100$
 3) 당해연도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을 모두 당해연도에 처리하는 것은 아님

- ① 2021년 교정국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중 기각 처리된 건수는 적어도 120건 이상이다.
- ② 2019~2023년 중 인용률이 가장 높은 해에 이첩 건수가 가장 많다.
- ③ 2019~2023년 중 각하율이 50% 이하인 해는 3개이다.
- ④ 기타를 제외하고 2020년 인권침해사건 접수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법무기관은 검찰국이다.
- ⑤ 2022년 인권침해사건 총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4. 다음 <표>는 지역별·용도별 건축물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정보>를 근거로 A~E에 해당하는 지역(강원, 경기, 경북, 전북, 충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지역별·용도별 건축물 현황
(단위: 동)

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A	659,642	296,848	114,900	37,213	157,366
B	247,945	66,614	22,051	11,143	59,533
C	232,970	80,990	14,335	15,343	82,438
D	509,429	125,321	35,326	20,406	134,506
E	278,327	79,287	7,559	14,249	58,117
전국	4,576,735	1,392,582	345,087	203,489	873,191

- <정 보>
- 전국의 교육·사회용 건축물 중 해당 지역의 교육·사회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지역은 경기와 경북이다.
- 주거용 건축물이 상업용 건축물보다 3배 이상 많은 지역은 강원, 충북, 경북이다.
- 교육·사회용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의 합이 상업용 건축물보다 작은 지역은 경기, 강원이다.
- 강원과 전북은 용도별 건축물 중 기타 건축물을 제외하고 공업용 건축물이 가장 적다.

- | | A | B | C | D | E |
|---|----|----|----|----|----|
| ① | 경기 | 충북 | 경북 | 강원 | 전북 |
| ② | 경기 | 강원 | 전북 | 경북 | 충북 |
| ③ | 경기 | 전북 | 충북 | 경북 | 강원 |
| ④ | 경기 | 충북 | 전북 | 경북 | 강원 |
| ⑤ | 경북 | 충북 | 전북 | 경기 | 강원 |

25. 다음 <표>는 2020~2023년 갑국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연간 매출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0~2023년 갑국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연간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갑국 전체 CRO	조사대상	79개	87개	72개	78개
	평균	8,508	9,806	13,730	12,565
	합계	672,093	853,157	988,547	980,087
X시 소재 CRO	평균	6,706	8,143	9,916	9,420
	합계	402,263	561,876	565,230	546,335
Y시 소재 CRO	평균	14,202	16,182	28,221	21,688
	합계	269,830	291,281	423,317	433,752

※ 1) 각 연도별 연간 매출액 조사에서 배제된 갑국 소재 CRO는 없음
2) 갑국은 X시와 Y시 2개의 시로만 이루어져 있음
3) 평균 연간 매출액 = $\frac{\text{조사대상 기관 합계 연간 매출액}}{\text{조사대상 기관 수}}$

<보 기>

- ㄱ. 2021년부터 2023년까지 X시 소재 CRO의 수와 Y시 소재 CRO의 수는 모두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도별로 Y시 소재 CRO의 평균 연간 매출액은 X시 소재 CRO의 평균 연간 매출액의 2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 ㄷ. 갑국 정부가 CRO 지원을 위하여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액을 해당 연도 기준 X시와 Y시에 각각 소재한 CRO의 수에 비례하여 각 시에 배분하였다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X시가 교부받은 예산액은 매년 75억원을 초과한다.
- ㄹ. 갑국 정부가 CRO 지원을 위하여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액을 X시와 Y시에 각각 소재한 CRO의 전년도 연간 총 매출액에 비례하여 각 시에 배분하였다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X시가 교부받은 예산액은 매년 70억원 미만이다.

- ① ㄴ
② ㄷ
③ ㄹ
④ ㄱ, ㄷ
⑤ ㄷ, ㄹ

26. 다음 <표 1>, <표 2>는 2023년 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3년 성별·연령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응답 비율	
			이용 경험이 있다	이용 경험이 없다
전체		4,581	12.3	87.7
성별	남성	2,334	13.1	86.9
	여성	2,247	11.5	88.5
연령별	10대	233	16.1	83.9
	20대	736	20.2	79.8
	30대	798	18.8	81.2
	40대	933	12.2	87.8
	50대	992	8.0	92.0
	60대 이상	889	3.8	96.2

※ 제시된 비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표 2> 2023년 성별·연령별 생성형 AI 서비스 일주일 중 이용 시간 구성비
(단위: %)

구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체		46.0	24.8	19.8	9.4
성별	남성	45.1	26.2	19.1	9.6
	여성	47.0	23.1	20.7	9.2
연령별	10대	40.5	23.4	18.4	17.7
	20대	33.5	34.6	18.8	13.2
	30대	42.8	29.3	20.2	7.7
	40대	54.5	13.4	24.8	7.4
	50대	58.0	20.4	15.5	6.0
	60대 이상	64.8	11.8	17.4	5.9

※ 1) 제시된 비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2) <표 1>의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미응답자는 없음

<보 기>

- ㄱ. 2023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남성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여성보다 10% 이상 많다.
- ㄴ. 2023년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은 10대가 30대보다 많다.
- ㄷ. 2023년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20대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30대보다 적다.
- ㄹ. 2023년 50대의 생성형 AI 서비스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은 20분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7. 다음 <표>는 2018~2022년 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8~2022년 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GWh)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에너지 총발전량	594,608	589,199	579,999	611,015	626,448
신재생에너지	29,679	34,246	43,123	50,656	57,779
재생에너지	26,202	30,909	37,202	43,668	50,405
태양광	10,167	14,192	19,337	24,717	30,726
풍력	2,464	2,679	3,149	3,180	3,369
수력	3,374	2,791	3,879	3,057	3,544
해양	487	476	460	456	426
바이오	9,363	10,415	9,938	11,788	11,927
폐기물	347	356	439	470	413
신에너지	3,477	3,337	5,921	6,988	7,374
연료전지	1,775	2,306	3,544	4,798	5,409
IGCC	1,702	1,031	2,377	2,190	1,965

- 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신재생에너지 외의 에너지 총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1배 이상이었다.
- ②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신에너지 발전량의 6배 이상이었다.
- ③ 2023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에너지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과 같고 2023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60,000 GWh라면, 2023년 전체 에너지 총발전량은 650,000GWh 이상일 것이다.
-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에너지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대비 풍력 발전량의 비중은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8. 갑국 의회는 총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254명은 지역구 의원이고 나머지 46명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갑국 의회의 구성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의원은 전체 당선 횟수를 기준으로 ‘초선 의원’, ‘재선 의원’, ‘3선 이상 의원’으로 구분된다.

○ 전체 의원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 여성 의원은 절반이 초선 의원이며, 그 나머지 중 절반은 재선 의원이다.

○ 비례대표 의원 중, 남성 의원 수는 여성 의원 수보다 2명 적다.

○ 남성 비례대표 의원 중 초선 의원 수는 여성 비례대표 의원 중 초선 의원 수와 같다.

○ 3선 이상 의원은 모두 지역구 의원이며, 그중 남성 의원 수는 74명이다.

○ 남성 지역구 의원 중, 초선 의원 수는 재선 의원보다 25% 많으며, 이는 전체 의원 중 재선 의원 수와 같다.

<보 기>

ㄱ. 초선 의원 수는 3선 이상 의원 수보다 40명 이상 많다.

ㄴ. 여성 지역구 의원 중 재선 의원 수는 남성 비례대표 의원 중 초선 의원 수의 60% 이상이다.

ㄷ. 여성 지역구 의원 중 3선 이상 의원 수와 여성 비례대표 의원 중 재선 의원 수의 차이는 10명이다.

ㄹ. 지역구 의원 중 남성 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중 여성 의원 수의 6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9. 다음 <표>는 2019~2022년 갑국 질병발생자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19~2022년 갑국 연령대별 및 산업별 업무상 질병발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령대	20대 이하	594	531	568	682
	30대	2,097	2,104	2,519	2,351
	40대	3,490	3,860	4,026	4,168
	50대	8,546	9,348	11,205	12,294
	60대 이상	6,185	7,005	8,944	10,441
산업	광업	2,357	2,612	3,203	3,724
	제조업	8,590	8,713	10,444	11,790
	전기·수도업	878	890	991	940
	건설업	4,913	5,182	7,055	8,723
	운수·통신업	1,709	1,892	1,943	1,877
	농·어업	952	1,004	958	1,020
	금융·보험업	63	83	111	201
	기타	1,450	2,472	2,557	1,661
합계		20,912	22,848	27,262	29,936

<보 고 서>

갑국의 20대 이하 업무상 질병발생자는 2019년 594명이었으나, 2022년은 682명으로 약 14.8% 증가하였다. 30대의 경우 2019년 2,097명, 2020년 2,104명, 2021년 2,519명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2,351명으로 감소하였다. 50대의 경우는 2019년 8,546명이었으나 2022년 12,294명으로 약 43.9%가 증가하였다. 50대의 경우 2022년 업무상 질병발생자의 산업별 유형 중 제조업이 약 39.4%를 차지하였다. 60대의 경우 2022년은 전년 대비 약 9.7% 증가하여 고령 노동자의 질병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업무상 질병발생자 수는 2021년부터 1만명을 넘긴 이후 2022년 11,790명을 차지하였고, 건설업의 경우 2022년의 업무상 질병발생자 수는 2019년 대비 77.5% 상승한 8,723명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의 경우 2022년의 업무상 질병발생자 수는 2021년 대비 90명 증가하였다.

<보 기>

- ㄱ. 2022년 제조업의 50대 연령대 업무상 질병발생자 수
- ㄴ. 2019~2022년 연도별 70대 이상 연령대 업무상 질병발생자 수
- ㄷ. 2019년 대비 2022년 건설업의 업무상 질병발생자 수 증가율
- ㄹ. 2021년 농업의 업무상 질병발생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감폭
- ㅁ. 2019~2022년 어업의 업무상 질병발생자 수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ㅁ
- ⑤ ㄴ, ㄷ, ㄹ, ㅁ

30. 다음 <표>와 <정보>는 배터리 평가 및 제품 구매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배터리 평가 점수표

평가 기준	점수 기준
안전성	★★★: 우수(5점), ★★: 양호(3점), ★: 보통(1점)
연속 사용시간	$10 - \frac{(\text{최소모드 사용시간} - \text{최대모드 사용시간})}{\text{최소모드 사용시간}} \times 10$ (점)
내구성	★★★: 우수(5점), ★★: 양호(3점), ★: 보통(1점)
충전시간	3시간 미만: 5점,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3점, 4시간 이상: 1점
가격	$10 - \frac{\text{가격}}{30,000}$ (점)

※ 가격 점수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정 보>

○ A~G배터리 제품 정보

제품	안전성	연속 사용시간 (시간)		내구성	충전시간	가격 (원)
		최대 모드	최소 모드			
A	★	4	10	★★★	3시간 59분	47,000
B	★★★	5	10	★★	4시간 06분	90,000
C	★★	5	7	★	4시간 36분	17,900
D	★★	10	26	★★★	2시간 28분	100,000
E	★★	11	47	★★	3시간 24분	300,000
F	★★	6	12	★★★	3시간 52분	50,000
G	★★★	10	30	★★★	2시간 43분	200,000

○ 각 소비자의 제품 구매기준

소비자 갑, 을, 병, 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한 배터리를 대상으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품을 구매한다.

갑: 나는 연속 사용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소모드로 20시간을 넘겨야 하고, 가격은 15만원을 넘는 프리미엄 제품이 어야 해. 그리고 배터리 내구성은 ‘양호’ 이상이고 안전성은 ‘우수’여야 해.

을: 나는 가장 먼저 배터리 내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구성은 ‘우수’여야 해. 다음으로 연속 사용시간은 최대모드로 10시간 이상이어야 해.

병: 나는 먼저 배터리 충전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4시간 미만이어야 해. 가격은 5만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고, 안전성은 ‘양호’ 이상이어야 해.

정: 나는 최대모드와 최소모드의 차이가 6시간을 넘지 않으면서, 최대모드가 5시간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병이 구매한 배터리는 더 이상 재고가 없어 구매할 수 없다고 해.

○ 종합점수 = 안전성 점수 + 연속 사용시간 점수 +
내구성 점수 + 충전시간 점수 + 가격 점수

- ① 갑은 E배터리를 구매할 것이다.
- ② 을은 G배터리를 구매할 것이다.
- ③ 병은 D배터리를 구매할 것이다.
- ④ 정은 C배터리를 구매할 것이다.
- ⑤ 병이 구매한 배터리가 재입고 되어도, 정이 구매하는 배터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31. 다음 <표 1>, <표 2>는 2018~2022년의 연구유형별 과제 수와 연구비 지원금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연도별 연구유형별 과제 수
(단위: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우수 연구	리더연구	79	79	89	95	101
	중견연구	4,388	5,990	5,385	6,256	6,639
	신진연구	3,412	2,235	2,029	2,481	2,748
생애 기본 연구	기초연구	—	2,002	1,713	1,484	1,468
	채도약연구	—	395	66	53	74
	생애첫연구	—	1,711	3,265	4,814	4,848

※ 전체 연구 = 우수연구 + 생애기본연구

<표 2> 연도별 연구유형별 연구비지원금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우수 연구	리더연구	53,407	56,993	64,310	69,053	74,750
	중견연구	533,592	641,254	742,861	889,517	958,553
	신진연구	186,013	147,353	223,038	253,079	323,058
생애 기본 연구	기초연구	—	54,775	44,701	35,515	39,813
	채도약연구	—	13,250	2,260	1,888	2,569
	생애첫연구	—	65,975	143,668	227,916	229,587

※ 전체 연구 = 우수연구 + 생애기본연구

- 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리더연구의 과제 1개당 연구비지원금은 매년 전년 대비 증가한다.
- ②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우수연구의 과제 수는 생애기본연구 과제 수의 1.5배보다 매년 많다.
- ③ 2020년 생애기본연구의 과제 1개당 연구비지원금은 4,000만원 이상이다.
- ④ 생애기본연구에 속한 연구유형 중 과제 1개당 연구비지원금이 가장 높은 연구유형은 2021년과 2022년에 서로 다르다.
- ⑤ 2020년 전체 연구비지원금에서 중견연구의 연구비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32. 다음 <표>는 갑국 가구의 자산 유형별 평균 보유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국 가구의 자산 유형별 평균 보유액
(단위: 만원)

구분		자산	금융 자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실물 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자동차 등
전 체		54,022	13,378	9,710	3,668	40,644	38,084	22,692	2,560
가 구 주 연령 대	39세 이하	31,583	13,079	6,284	6,795	()	16,135	11,623	2,369
	40~49세	58,212	15,950	10,495	5,455	()	39,196	25,645	3,066
	50~59세	61,448	15,589	12,613	2,976	()	42,666	25,634	3,193
	60세 이상	58,251	10,976	9,258	1,718	()	45,241	24,761	2,034
가 구 주 종 사 상 지 위	상용근로자	58,486	17,284	11,802	5,482	()	39,132	24,918	2,070
	임시·일용근로자	24,383	5,979	4,107	1,872	()	17,573	12,193	831
	자영업자	67,640	13,136	10,528	2,608	()	48,194	22,440	6,310
	기타	46,532	9,131	7,358	1,773	()	36,624	23,742	777

※ 1) 자산 = 금융자산 + 실물자산
2) 단, ‘기타’의 경우도 가구주 종사상 지위의 한 종류로 가정함

<보 기>

ㄱ.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금융자산 중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ㄴ. 가구주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ㄷ.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자영업자가 상용근로자에 비해 더 작다.

ㄹ. 실물자산 중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임시·일용근로자가 가구주 종사상 지위 중 가장 작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33. 다음 <표>는 2025년 갑국 민간 보조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10개 사업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5년 갑국 민간 보조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10개 사업
(단위: 억원, %)

소관부처	사업명	2024년 (A)	2025년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6,571	8,019	()	22.0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	7,462	7,617	155	2.1
환경부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5,482	7,125	()	()
외교부	인도적 지원(ODA)	7,034	6,369	()	-9.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6,856	5,014	()	-26.9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 경영혁신지원	4,158	4,582	424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285	3,863	()	()
국토교통부	PSO보상	3,612	3,623	11	0.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3,213	3,293	80	2.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1,663	2,748	()	()
전체 민간 보조사업 예산		46,588	54,689	()	()

<보 기>

- ㄱ. 2025년 갑국 예산 규모 상위 10개 민간 보조사업 중 전년 대비 순위가 하락한 사업 수는 상승한 사업 수의 2배이다.
- ㄴ. 2025년 갑국 예산 규모 상위 10개 민간 보조사업 중 환경부 소관 사업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중소기업부 소관 사업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작다.
- ㄷ. 2025년 갑국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200% 이상 증가하였다.
- ㄹ. 2025년 갑국 예산 규모 상위 10개 민간 보조사업의 평균 예산액은 5,250억원 미만이다.
- ㅁ. 2025년 갑국 예산 규모 상위 10개 민간 보조사업 중 세 번째로 예산 증액 규모가 큰 사업은 예산 증가율 또한 세 번째로 크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34. 다음 <표>는 2021~2023년 갑국 도시철도 수송인원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1~2023년 갑국 도시철도 수송인원
(단위: 천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A시	2,126,502	2,148,700	2,385,057
B시	246,495	253,924	284,643
C시	110,237	122,167	133,155
D시	122,041	133,709	199,634
E시	13,583	14,401	15,908
F시	26,229	27,346	31,441
G시	12,719	13,550	14,974
H시	11,369	12,217	13,794
I시	8,407	9,293	11,140
J시	16,568	20,055	22,650
전체	2,694,150	2,755,362	3,112,396

<보 기>

- ㄱ. 2021년 대비 2023년에 도시철도 수송인원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D시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이다.
- ㄴ. 2021년 이후 전체 도시철도 수송인원 중 C시가 운영하는 도시 철도 수송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 ㄷ. 2021년 이후 전체 도시철도 수송인원 중 A시가 운영하는 도시 철도 수송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75% 이상이다.
- ㄹ. 2021년 이후 E시와 H시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수송인원 수의 평균은 G시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수송인원 수보다 매년 적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5. 다음 <표>는 2021~2023년 갑국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1~2023년 갑국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단위: 천명, 명/km²)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A	9,508	15,709	9,421	15,567	9,400	15,533
B	3,334	4,328	3,303	4,282	3,284	4,258
C	2,396	2,711	2,372	2,679	2,360	2,666
D	2,950	2,766	2,975	2,788	3,009	2,820
E	1,476	2,945	1,470	2,933	1,463	2,921
F	1,482	2,747	1,472	2,728	1,474	2,731
G	1,125	1,059	1,114	1,048	1,106	1,041
H	361	777	380	818	387	833
I	13,611	1,335	13,690	1,342	13,781	1,351
J	1,520	90	1,527	91	1,525	91
K	1,626	220	1,623	219	1,627	220
L	2,175	264	2,186	265	2,204	267
M	1,792	222	1,777	220	1,768	219
N	1,785	144	1,775	144	1,768	143
O	2,641	139	2,626	138	2,611	137
P	3,315	314	3,287	312	3,267	310
Q	672	363	675	365	677	366

※ 1) 인구밀도는 각 지역의 인구를 그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km²당 거주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를 의미함
2) 2021~2023년 각 지역의 면적은 변동 없음

<보 기>

- ㄱ. 2021~2023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매년 증가하고, 감소하는 지역은 매년 감소하였다.
- ㄴ. 2023년 D의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은 2023년 L의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 ㄷ. N의 면적은 M 면적의 1.5배 이상이다.
- ㄹ.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매년 인구밀도가 가장 낮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6. 다음 <표>는 2019~2022년 갑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D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바이오, 수력, 태양광, 해양)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19~2022년 갑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GWh)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A	10,416	9,938	11,788	11,928
B	14,193	19,338	24,718	30,726
C	474	554	455	424
D	2,791	3,879	3,057	3,545
풍력	2,679	3,150	3,180	3,369
폐기물	356	439	471	414
합계	30,909	37,298	43,669	50,406

※ 단, 재생에너지는 바이오, 수력, 태양광, 폐기물, 풍력, 해양 총 6가지로 구성됨

<조 건>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대비 발전량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은 풍력에너지, 해양에너지다.
- 2020년의 수력에너지 발전량과 폐기물에너지 발전량의 합은 2020년 태양광에너지 발전량보다 작다.
- 2022년 수력에너지 발전량은 바이오에너지 발전량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크다.

- | | A | B | C | D |
|---|-----|-----|-----|-----|
| ① | 바이오 | 태양광 | 해양 | 수력 |
| ② | 수력 | 태양광 | 해양 | 바이오 |
| ③ | 해양 | 바이오 | 수력 | 태양광 |
| ④ | 해양 | 수력 | 태양광 | 바이오 |
| ⑤ | 해양 | 태양광 | 바이오 | 수력 |

37. 다음 <표 1>, <표 2>는 공유재산의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21년 공유재산의 용도별·종류별 현황
(단위: 천개, km², 조원)

구분	합계			토지			건물			기타	
	수	면적	가액	수	면적	가액	수	면적	가액	수	가액
합계	2,694,159	9,413	876	5,149	9,235	475	158	178	120	2,688,852	281
행정 재산	1,644,013	8,038	810	4,887	7,869	454	109	169	114	1,639,017	242
일반 재산	1,050,146	1,375	66	262	1,366	21	49	9	6	1,049,835	39

<표 2> 2020~2021년 공유재산 소유별·용도별·종류별 재산가액
(단위: 십억원)

구분		재산가액	
		2020년	2021년
소유별	시·도유 재산	362,305	375,515
	시·군·구유 재산	473,383	500,505
용도별	행정재산	774,551	810,190
	일반재산	61,137	65,830
종류별	토지	450,768	474,624
	건물	112,912	119,771
	기타	272,008	281,625

※ 단, ‘기타’의 경우도 공유재산의 한 종류로 가정함

- ① 2021년 공유재산 가액 중 시·군·구유 재산가액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60% 미만이다.
- ② 2021년 일반재산의 재산가액은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하였다.
- ③ 2020년 대비 2021년 재산가액의 증가율이 가장 큰 공유재산의 종류는 건물이다.
- ④ 2021년 시·군·구유 재산가액 중 행정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33조원 이상이다.
- ⑤ 2021년 행정재산 중 건물 한 개당 면적은 토지 한 개당 면적보다 크다.

38. 다음 <표>는 2023~2024년 A~F금속의 목표재고량 및 실제재고량, 신규비축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23~2024년 A~F금속의 목표재고량 및 실제재고량, 신규비축량
(단위: 톤)

구분	2023년			2024년		
	목표재고량	실제재고량	신규비축량	목표재고량	실제재고량	신규비축량
A	84,000	65,145	17,600	85,000	69,662	18,003
B	35,000	27,130	8,052	35,000	29,890	5,654
C	60,000	39,834	10,025	57,000	36,250	6,045
D	241,750	196,882	20,459	268,000	220,774	45,690
E	75,000	69,894	9,018	95,000	74,412	15,116
F	129,400	81,065	4,350	116,000	78,205	4,867

- ※ 1) (N+1)년 실제재고량 = N년 실제재고량 + (N+1)년 신규비축량 - N년 감소량
- 2) N년 달성률(%) = $\frac{N\text{년 실제재고량}}{N\text{년 목표재고량}} \times 100$

- ① C금속의 2022년 감소량이 8,000톤이었다면 C금속의 2022년 실제 재고량은 37,800톤 이상이다.
- ② E금속의 2023년 감소량은 10,000톤 미만이다.
- ③ 2024년 목표재고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금속은 모두 2023년과 2024년 달성률이 각각 65% 이상이다.
- ④ 2024년 실제재고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금속 중 2024년 신규비축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금속은 2개이다.
- ⑤ 2024년 달성률이 가장 높은 금속은 2023년 달성률도 가장 높다.

※ 다음 <표 1>, <표 2>는 2019~2023년 갑국 50세 이상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답하시오. [문 39. ~ 문 40.]

<표 1>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활동인구	11,604	11,917	12,350	12,900	13,298
취업자	11,354	11,664	12,116	12,753	13,129
임금근로자	7,141	7,503	7,907	8,463	8,706
비임금근로자	4,213	4,161	4,209	4,290	4,423

<표 2> 5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단위: 천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령별	50~54세	2,378	2,413	2,550	2,703	2,664
	55~59세	2,057	2,088	2,098	2,180	2,230
	60~64세	1,288	1,399	1,501	1,632	1,739
	65세 이상	1,418	1,603	1,758	1,948	2,073
성별	남성	3,867	4,067	4,274	4,584	4,622
	여성	3,274	3,436	3,633	3,879	4,084
학력별	중졸 이하	2,023	2,032	2,043	2,017	1,904
	고졸	2,938	3,021	3,300	3,557	3,705
	대졸	1,831	2,065	2,211	2,472	2,630
	대학원졸	349	385	353	417	467
합계		7,141	7,503	7,907	8,463	8,706

39. <표 1>, <표 2>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고 서>

갑국의 중고령자(50세 이상)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50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2019년 11,604천명에서 2023년 13,298천명으로 1,694천명 증가하였으며, 50세 이상 취업자의 수 또한 2019년 11,354천명에서 2023년 13,129천명으로 1,775천명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각각 증가하였으며, 2023년 임금근로자의 수는 전체 50세 이상 취업자의 6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고령자 임금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살펴본 결과, 세부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전 연령대에서 임금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수는 1,418천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073천명으로 655천명 증가하였으며, 5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8%로 2019년에 비해 3.9%p 증가하였다. 60~64세의 임금근로자 수도 2019년에 비해 451천명 증가하였으며 5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반면 50~54세, 55~59세 임금근로자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에 그 수는 증가하였으나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감소하였다.

㉣2019년 기준 5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남성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를 제외한 고졸·대졸·대학원졸 임금근로자의 수는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대졸 학력 임금근로자가 799천명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반면, 중졸 이하 학력 임금근로자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119천명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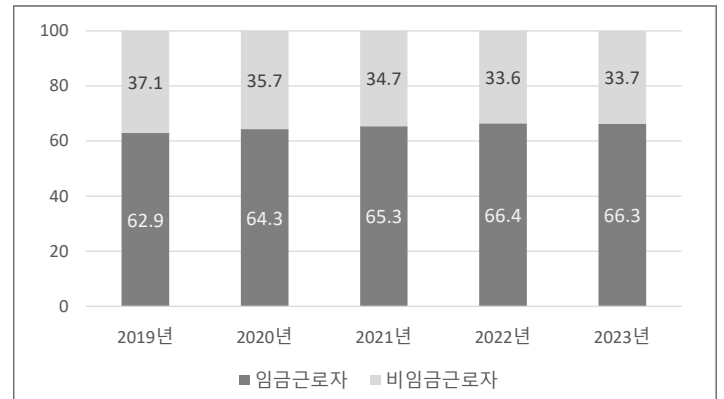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다음 <보기> 중 <표 1>, <표 2>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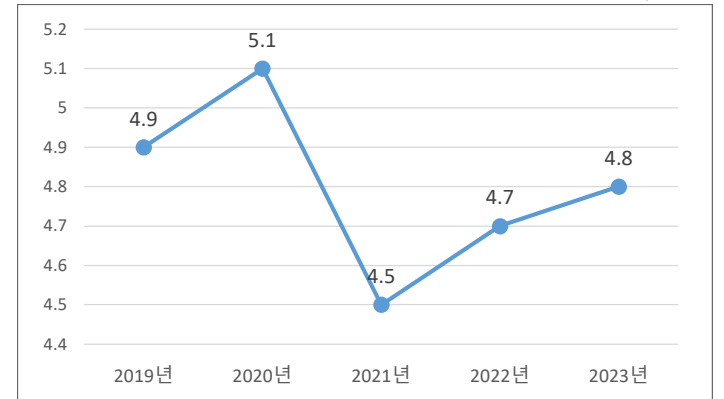
ㄱ. 2019~2023년 50세 이상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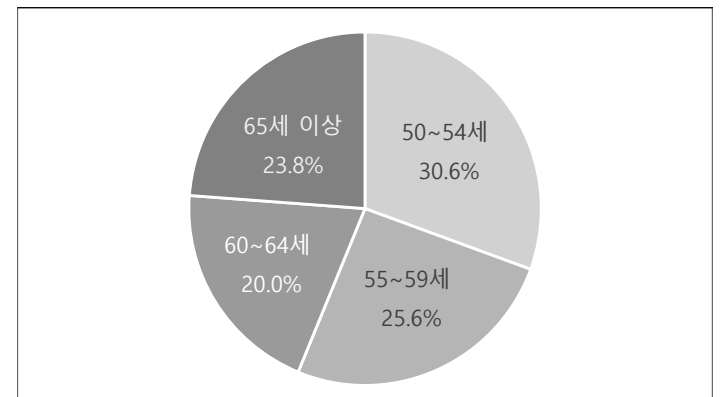


ㄴ. 2019~2023년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대학원졸업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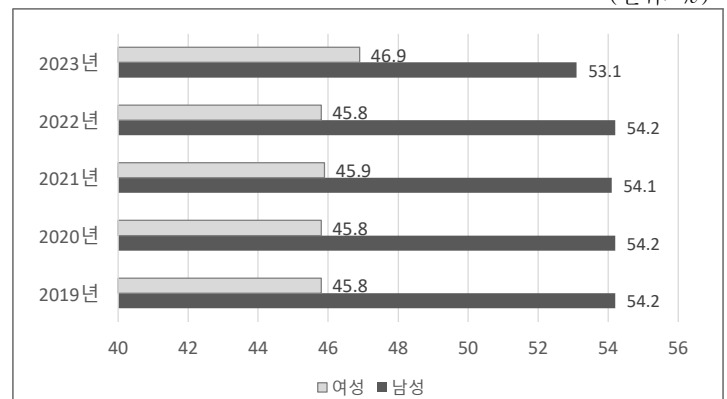


ㄷ. 2023년 5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비중



ㄹ. 2019~2023년 50세 이상 취업자의 성별 비중

(단위: %)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